

김광재 이사장, 본격 업무 착수

- 취임직후 본사 업무보고 받아 -

김광재 이사장이 본사 업무보고를 받는 등 공식적인 첫 업무를 시작하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철도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다"며 "철도전문 기관의 위상에 맞는 기술력과 주요 자재의 기술 국산화를 통

하여 안전과 철도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만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공단 임직원은 항상 국민의 공복으로서 기본자세를 잊지 말아 달라"고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윤리를 당부하였다.

이어 대전 현충원 참배와 청사 기자실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이날 오후 본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지역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 업무 파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영남대를 나와 캐나다 맥길대학교 항공우주법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행정고시 제 24회로 공직에 입문, 철도청 순천지방철도청 장성역장을 시작으로 교통부와 건교부, 국토해양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고,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지냈다.

(홍보실 박용기 기자)



취임식



본사 업무보고



오리~수원 현장방문

취임사

경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먼저 철도 확충이라는 소명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사장으로서의 막중한 업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을지 의아함이 없진 않지만, 공무원 첫 발을 철도청에서 디딤과 30여년 공직생활 거의 반 정도를 철도 업무를 한 인연이 있었기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남다른 깊은 감회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 철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이었습니다. 근대화 산업화의 원동력으로 전 국토에 생명을 불어넣은 혈관이자 심장이었습니다. 한 때 도로교통에 비해 뒤떨어져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고속철도 건설과 철도구조개혁의 추진으로 이를 극복해왔다고 봅니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2004년 출범한 공단은 혁신의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며, 단기간에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를 제공하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임직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이룬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을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경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추이와 유가불안, 경기 침체 등의 여건은 우리에게 그간의 발전성만을 믿고 안이하게 있을 수만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소비의 친환경적인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철도의 중흥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철도 투자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철도 품질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최근 KTX의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그 간 철도에 대한 국민

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철도구조개혁을 다시 되돌릴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단 으로서는 이로 인한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업추진 시에도 안전과 품질에서 추후의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철도의 미래가치를 최고수준으로 보장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철도가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데 우리 공단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효율적 예산집행과 공단 재무건전성 제고,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늘어나는 철도 투자 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야 하지만, 복지, 안보 등 타 분야 예산 증대를 위한 SOC 투자예산 축소 요구와 다른 교통시설에 대한 상대적 투자증대 요구가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철도투자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설계기법 확대, 발주와 시공방법 개선 등 사업예산을 절감해야 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객감동의 경영과 최고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철도기술력과 글로벌경쟁력 강화, 해외사업확대 등 신성장동력 확보와 공생발전의 요구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철도전문가들이지만, 철도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철도 품질인증과 핵심자재 국산화를 조속히 달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철도 사업을 적극 수주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사회 기치 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생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무엇보다 "온고이지신(溫故以知新)"과 "전거복후거(前車覆後車)"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잘해온 점은 계승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가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혁해 나간다는 기조하에서 공단의 새

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네 가지를 실천하고자 다짐하였 습니다.

첫째,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단의 설립목적이자 기본임무입니다. 철도건설, 특히 국책사업들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되 일류 수준으로 건설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편리함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철도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궁극적으로 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단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철도전문기관의 위상에 걸 맞는 기술을 확보하고, 주요 자재는 기술 국산화를 통하여 안전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안전과 품질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신뢰와 상생의 활기찬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설수 없고, 무너집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해도 서로 신뢰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공단의 업무성과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경영진과 직원 간에, 또 임직원 상호 간에 보이지 않는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고 서로가 화합하고 신뢰하며 아끼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신뢰에 기초한 조직 운영과 공정하고 원칙에 의거한 인사를 위해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맡겨진 일을 저 혼자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공단의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업무 추진은 치밀해야만 실패를 앓게 됩니다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신규업무나 업무개발과정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사안일과 부정적인 사고는 멀리하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임직원들이 뚝뚝 뭉친 최고의 공공기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임직원은 항상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기본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공직자의 도덕불감증, 부정부패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청렴과 윤리가 말로 공직자의 기본덕목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상의 철도라고 만들어도 고객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항상 고객과 소통하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지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재 성장과 분배의 조화, 따뜻한 자본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다같이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소위 "자본주의 4.0"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도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 협력사와는 우리 공단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생(共生)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바른 마음을 가지면 모두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의 앞에 서서 강한 책임과 소명의식으로 여러분과 동고동락 하면서 우리 공단이 일류 공공기관이 되고,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는 저 혼자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공단의 1,400여명 임직원 모두가 함께 해 줘야만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되어 뚝뚝 뭉치고, 함께 화합하고 협력하여 녹색교통혁명을 추진하고, 공생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이 시대 최고의 철도 전문가이자 산업역군으로 거듭나고 공단을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만드십시오.

금주의 주요뉴스 (8. 17 ~ 8. 27)

- 인천공항~평창 고속철, 광명역 경유가 타당 (한국일보, 서울경제, 조선일보 8. 17)
- 인천~강릉 동서간선철도 조속 추진 (강원도민일보 8. 18)
- 춘천~속초 고속철 추진 '허구조' (강원일보 8. 18)
- 자기부상열차가 대전 도심에 다녀야 할 이유 (충청투데이 8. 18)
- KTX소음피해 양산 축산농가 보상판결 받아내 (국제일보 8. 18)
- 경의선 철도역사에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경기일보 8. 19)
- 경인·수인선 전철 역사 주변 개발(조선일보 8. 19)
- 제주도민 70% 해저고속철도 찬성(서울신문 8. 19)
- 수도권 전철 유치 막판 분투(대전일보 8. 19)
-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 타당(경기일보 8. 19)
- 천안~청주공항 직선노선 건의(중도일보 8. 19)
- 신탄진 주민 '철도기지 인입선 이설해주' (조선일보 8. 19)
- 내년 4월 전라KTX 고속화 마무리(조선일보 8. 22)
- 동백산~도계 철도 내년 6월 개통(강원도민일보 8. 22)
- 국토부 '미금정차역 타당성 있다' 광고입주인 '용역결과 신뢰 못해'(조선일보 8. 22)
- 공학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인천시, 2013년 개통 목표 (서울신문 8. 22)
- 인천시, 경인·수인선 역세권 정비·개발 나서 (서울경제 8. 22)
-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광재씨 (서울신문, 중도일보, 충청일보 8. 23)
- 서울~여수 KTX "저속철 탈출" (중앙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8. 23)
- 인천~평창 70분내 이동 못하나(강원도민일보 8. 23)
- 땀방울로 통하는 철도로부터 1년 뒤(한국일보 8. 23)
- 시베리아 횡단철도(한국일보 8. 23)
-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취임 등(문화일보, 대전일보, 한겨레신문 8. 24)
- 유라시아~북미 대륙 철도 연결 '탄력' (세계일보 8. 24)
- "경의선 효창정거장 부지 220m 때문에..." (조선일보 8. 25)
- 인천 철도역사 재개발 본격화(국민일보 8. 25)
- GTX 연계해 경원선 지하화해야(조선일보 8. 26)
- 인천공항~평창 철도 주파시간(강원도민일보 8. 26)
- KTX 신호시스템 이상 광명역서 또 운행지연 (세계일보 8. 26)
- 베링해협이 해저 철도터널로 연결되면(조선일보 8. 26)
- 철도 분야서 한국인 최초 유엔 산하기구 진출 (국민일보 8. 26)
- 철도 사망 캠프(강원도민일보 8. 27)

(KR연구원 윤성순 기자)

공단, 내진기술 공동연구 참여 - 수익 창출 및 연구수행능력 향상 효과 기대 -

KR연구원(원장 이시용)은 공단 최초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인프라 내진기술 선진화 체계구축 기획연구' 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를 위한 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하였다.

최근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대형 강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철도 시스템의 내진 안전성 확보 및 내진기준 적합성 여부가 정부 및 학계에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 시스템의 내진성능향상 및 지진 후 체계적인 인프라 진단/복구를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표준지침 수립 및 관련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기획연구를 통하여 기술동향 분석, 세부 전략 수립 및 필요 연구분야 도출을 위하여 "철도 인프라 내진기술 선진화 체계구축 기획연구"를 발주하였다.

공단은 기획연구 단계부터 참여를 통하여 대외 연구수행 능력 경쟁력 확보 및 내진 핵심기술 구축을 통하여 내년 상반기 본 과제(총 연구개발비 약 300억원) 수행시 공동기관으로 참여, 수익창출(수탁수수료 징수) 및 연구수행 능력 향상 효과가 예상된다.

(KR연구원 윤성순 기자)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기본계획 -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

KR연구원(원장 이시용)은 지난 11일 국토부 철도기술안전과장 등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관계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국내 최초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관계기관 및 직원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철도종합시험선로의 4개의 대안노선에 대해 시험속도와 분야별 시험항목의 장·단점에 대해 열띤토론을 통해 고속대역 시험선 확보 및 기존선 활용을 배제하는

(KR연구원 황인환 기자)



헌혈은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나눔입니다!

- 본사 및 충청본부 하절기 헌혈행사 실시 -

관리본부(본부장 이봉철)는 지난 24일 본 로도 지속적으로 헌혈행사에 동참해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80여명이 동참하였는데 철도사법경찰대, 우리은행, 수행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있는 행사였다.

공단은 지난 2005년 헌혈비수기인 2월, 8월 넷째주 수요일을 자체 '헌혈나눔주간'으로 지정하고, 매년 두차례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혈액원과 연계해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설관리처 정대호 차장은 "헌혈을 통해 제 피가 병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

